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太平舞



문화재청자료실



EM002970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 ㉔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 평 무

太平舞



1997

국립문화재연구소

일러두기

1. 이 책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의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제작 과정에서 파생된 해설 책자이다.
2. 이 책에 수록된 용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예능보유자 강선영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따랐다.

차 례

머리말	5
Ⅰ. 개설	7
Ⅱ. 태평무의 유래와 전승	10
Ⅲ. 태평무 예능보유자 강선영	14
Ⅳ. 태평무의 형식	27
1. 무 복	27
2. 춤 장단	35
3. 춤 구성	57
4. 춤 사위	62
Ⅴ. 태평무의 특징	88
Ⅵ. 태평무의 무보	93
1. 낙궁	93
2. 터벌림	95
3. 올림채	175
4. 도살풀이	189
5. 잣은 도살풀이	221
6. 터벌림	239

머 리 말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는 예능 보유자인 강선영의 무보를 중심으로 엮은 기록물이다.

한국 전통 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의 하나로 기획된 이 책은 기록영화와 짝을 이루면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편집되었다.

예능민속연구실의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은 과거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온 유산을 통해 각박한 형식 논리와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 산업 사회에서도 진정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와 세계화 속에서 한국인의 동질성 확립과 민족 문화의 향기를 드높일 수 있는 기초 작업이다.

이 작업의 성과물인 기록 영화와 책자가 전통 문화 유산의 보존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전수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국민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과 문화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도모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97년 8월

예능민속연구실장 朴 相 國

I. 개 설

태평무는 명고수이자 명무자였던 한성준(韓成俊)이 추던 춤의 하나이다. 태평무가 어느 때부터 전승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문헌 기록이나¹⁾ 많은 국악인들에 의해 구전으로 내려온 이야기로 보아 약 100년 전부터 추어 왔던 춤임에 틀림없다.

태평무의 반주 장단은 경기도 도당굿의 진쇠가락을 비롯하여 낙궁·티벌림·도살풀이 등의 가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춤옷은 임금과 왕비의 옷을 재구성하였으며, 춤은 너울너울 움직이는 팔사위와 웅장한 의상의 어울림, 흥과 멋과 신명이 넘치는 디딤새가 정확한 발사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춤사위는 경기도 무무(巫舞)의 동작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경기도 도당굿에서 행하여진 무악과 무무를 바탕으로 한성준이 방안 춤으로 재구성한 예술적인 춤이라고 할 수 있다.

태평무의 내용은 풍년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축복하는 뜻을 담고 있다. 또 이 춤은 다른 민속춤에 비하여 춤사위가 특이하고 개성적이며 예술성이 높다.

태평무라는 이름의 이 춤은 경기도 도당굿의 재인(才人)이고 무속음악의 대가였던 이용우(李龍雨)가 붉은 철록(天翼)을 입고 태사(太史)신에 관모(官帽)차림으로 춘 적이 있고 발탈 예능보유자인 이동안(李東安)이 남색 관복차림으로 추기도 했다. 이용우는 이 춤이 '옛날 원님들이 임금님 앞에서 추던 춤'이라고 증언했고, 이동안은 이 춤이 '화성 재인청에서 전해진 춤'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 한성준의 태평무는 임금과 왕비가 나라의 태평을 기원하는 춤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선영은 말한다. 진쇠·티벌림·도살풀이

1) 趙元庚, 《舞踊藝術》, 海文社, p. 202, 1967.

등의 경기 무속장단을 기본으로 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단이나 춤사위 디딤새로 보아 이 춤이 궁중과 직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태평무라는 이름에서 빼앗긴 나라에 사는 춤꾼의 소원이 보이고, 그가 가져온 장단과 춤사위의 근본이 경기도 도당굿이었다는 점에서 오랜 기원을 읽을 수가 있다. 한성준의 태평무를 직접 사사한 유일한 전통 춤꾼으로 강선영(姜善泳)이 있다.

사진 1. 태평무





사진 2. 태평무 예능보유자 강선영

Ⅱ. 태평무의 유래와 전승

태평무의 역사적 유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및 제 39호 처용무 예능보유자인 김천흥(金千興)을 비롯하여 여러 국악계 원로들에 의한 고증과 직접 어렸을 때부터 이 춤을 배웠던 한영숙(韓英淑)과 강선영에 의해 해명되고 있다.

국악계 원로들의 이야기로는 과거에는 한성준이 추던 태평무에 대한 기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책자들이 분실되어 조원경(趙元庚)의 《무용예술(舞踊藝術)》만이 전하고 있다고 했다.

고증자들은 이 춤을 한성준이 경기지역 무무(巫舞)를 재구성한 것이라고 하였다. 춤의 내용은 왕과 왕비, 그리고 나라의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것이라고 했다.²⁾ 그런데 태평무는 장단이 복잡하여 음악(가락)을 알지 못하고서는 춤을 만들 수도 출 수도 없다. 그러나 한성준은 명고수였기 때문에 이 어려운 춤을 재구성하여 출 수 있었다.

한성준(韓成俊 : 1875~1941)은 조선조말 대원군과 고종 앞에서 춤을 춰 '참봉'이라는 작위를 받았던 사람으로 우리 나라 음악은 물론 춤을 예술적으로 집대성한 인물이다.

충청남도 홍성에서 출생하였으며, 일곱살 때부터 외할아버지인 백운채(白雲彩)에게 춤과 북을 배웠다. 14세 되던 해부터는 고향 홍성에서 서학조(徐學祖)에게 줄타기와 땅재주를 3년 동안 배웠다. 그리고 수덕산의 박순조(朴順祚)의 문하에 들어가 스무살이 넘도록 춤과 장단 공부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성준은 무용과 장단에 능한 예인이 될 수 있었다.

1894년 이후 한성준은 유랑 생활을 잠시 하다가, 서울의 원각사(圓覺社) 무대에 출연하게 되면서부터 서울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 후 원각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부터는 협률사(協律社)와 연흥사(延興

2) 韓英淑 談

社) 등의 단체를 따라 지방 순회공연을 다녔다. 이때 그는 고수로서 열다섯 차례의 창방(唱榜)을 치렀다. 또한 김창환(金昌煥)·박기홍(朴基洪)·송만갑(宋萬甲)·이동백(李東伯) 등 당대 이름난 명창들의 고수로 명성을 얻기도 하였다. 또한 이때 궁중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경험은 후에 태평무(太平舞)·학무(鶴舞)를 만드는 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한성준은 1930년 <조선음악무용연구회>를 조직하였으며, 1934년에는 무용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조선무용연구소>를 만들어 많은 제자를 길렀다. 그리고 1935년에는 부민관(府民館)에서 <한성준 무용공연회>를 가졌고, 그 뒤 동경(東京)을 비롯해 일본의 주요 도시에서 순회 공연을 가짐으로써 한국 춤을 일본에 소개하기도 하였다.



사진 3. 한성준 선생



사진 4. 한성준 선생과 강선영

1941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의 〈모던일본사〉가 주는 예술상을 받았다.

주요 작품으로는 태평무·학무·신선무·살풀이춤·한량무·사공무·농악무 등이 있다. 그가 길러낸 제자로는 김천흥(金天興)·김보남(金寶男)·이강선(李剛仙)·장홍심(張紅心)·한영숙(韓英淑)·강선영(姜善泳)·이매방(李梅芳)·정인방(鄭寅芳)·진수방(陳樹芳)·김삼화(金三和) 등이 있다.

한성준은 음악에 재주가 있고 박자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기도 도당곳의 왕거리에서 나온 춤을 방안 춤인 태평무로 집대성한 것으로 보인다.³⁾ 김천흥이 이 춤을 처음으로 본 것은 1935년 한성준이 〈조선음악무용연구회〉를 하던 당시 공연 때였다고 한다.

한성준은 손녀 한영숙과 강선영에게 태평무를 영구적으로 보존할

3) 金千興 談



사진 5. 제자들과 함께 한 강선영

것을 부탁할 정도로 이 춤에 대한 애정을 가졌다고 하며, 또한 작고 할 때는 유언으로 “내가 죽으면 수의를 입히지 말고 태평무 의상을 입혀 달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춤 중에서 태평무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였다.⁴⁾

이러한 춤은 해방 후 전통 무용가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추어지고 있으나, 한성준류 태평무의 계보는 강선영에 의하여 이현자·이명자·양성옥·김근희·조홍동·심정옥·심정순·이춘자·고선화·윤덕경·임학선·강윤나·김나영·이미숙·김연자·홍진희·김미란·최혜숙·임관규·한미경·임현선·김원화·황의자·김정학·이화숙·이진실·원정숙·정혜진·나재선·최미광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태평무 반주 가락은 김덕수·강민석·김동원 등에 의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4) 韓英淑·姜善泳 談

Ⅲ. 태평무 예능보유자 강선영

태평무 예능보유자인 강선영은 1925년 3월 30일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명목리 207번지에서 농사짓던 아버지 강병학(姜炳學)과 어머니 박춘매(朴春梅) 사이의 삼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13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조선말 벼슬을 지낸 엄하고 완고한 조부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강선영은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소학교 6학년 때 ‘신식 어머니 구식 어머니’ 학예회 발표 공연 주연을 맡았어. 노래부르는 주연을 맡아 3개월간 연습해도 잘 안됐어. 그때 김복순 선생이 ‘너 그럼 무용이나 해라’며 춤을 추는 배역을 다시 맡겼는데 30분만에 끝냈어. 성공리에 마쳤거든 그때 선생님이 어머님 보고 ‘따님 요다음에 무용시키세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선생님의 권유와 어머님의 도움으로 오늘날까지 춤을 추고 있지”

그때 여자는 신학문은 필요없다고 하는 엄하고 완곡한 조부께 춤까지 추겠다는 손녀의 뜻을 도저히 펼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평소 여자도 뭔가 뚜렷한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셨던 어머님이 춤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다.

1937년 3월 13세 때 한성준을 찾아갔다. 한성준과 강선영의 큰할아버지는 궁중에 같이 계셔서 서로 친분이 있었다. 춤학습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방학 때를 이용했는데 작은 할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시면서 어머니와 손녀를 쫓아내셨다. 어머니는 아예 집을 나와 평택에서 바느질과 하숙을 치며 딸 뒷바라지를 해 주셨다. 이후 강선영은 서울로 올라왔는데 한달 수강료는 쌀 한 가마니와 5원이었다. 그런 집안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춤을 추며 오늘이 있기까지는 전적으로 어머니 덕이라며 작은 할아버지 역시 오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대견해 할 것이라며 회한에 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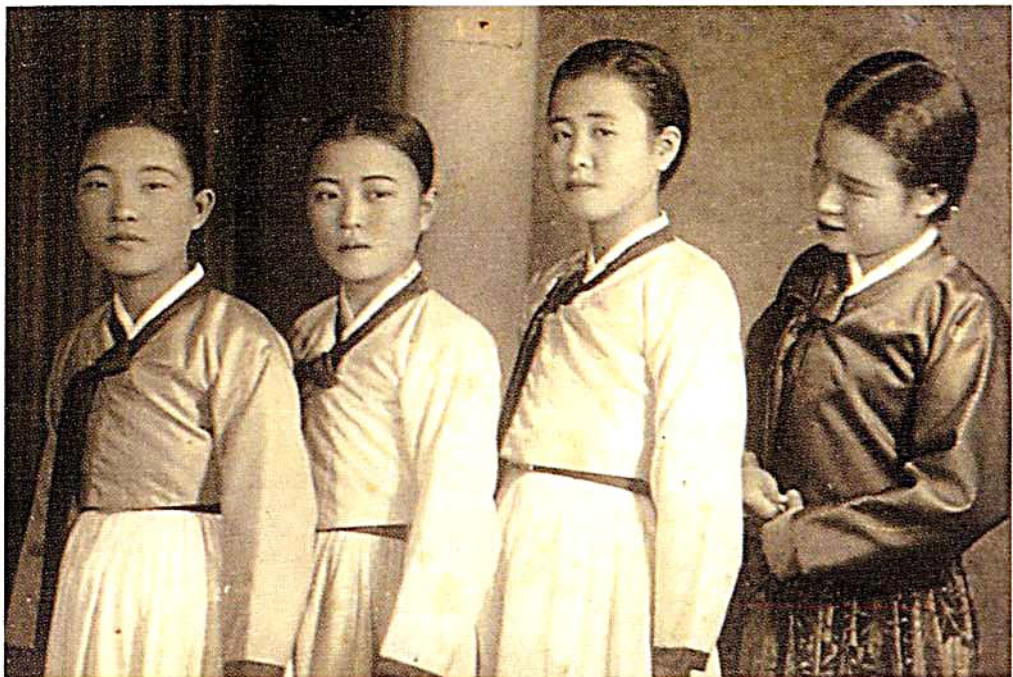


사진 6. 연구소 시절(18세 때) 모습. 왼쪽부터(강선영, 김동희, 박학심, 한영숙)

춤과 장단의 귀신으로 통했던 한성준은 명고수 명무로 전설적인 인물로 충청도 홍성 태생이다. 그때 종로구 경운동 교동초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했던 한성준 고전음악 무용연구소는 2층 한옥으로 되어 있었는데, 1층은 살림집과 기숙사로 쓰였고 2층에 연습실이 있었다.

한성준의 손녀로 1989년 작고한 한영숙(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기능보유자)과는 같은 방에서 기거하면서 동거동락했다. 그 외 이강선(李綱善)·장홍심(張紅心)·김천흥(金千興) 등을 비롯하여 신무용가 조택원(趙澤元)·최승희(崔承喜)까지도 잠깐이었지만 한성준 문하를 거쳐간 무용가들이다.

한성준이 일찍부터 명고수로 이름나 있던 관계로 이 연구소에는 이동백, 임방울, 김소희를 위시하여 김광식, 이정업, 지영희, 성금연 등의 국악인들도 상주하거나 자주 들러 장단을 주고받았다.

이때부터 20세 때까지 7년간 이곳에 숙식하면서 한성준선생이 보유했던 40여 가지의 춤을 익혔다. 특히 학춤을 창안할 때 고생했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어느 해인가 추운 겨울날 창경궁으로 매일 출퇴근하다시피 하며 학의 동태를 살폈다. 학이 모이를 쪼는 동작, 날개 펴는 동작, 걷는 동작 등을 유심히 관찰한 후 그것을 노트에 적어 와서는 그대로 학의 자태를 모방하여 만든 것이 바로 한성준류 학춤인 것이다. 학춤을 무대에 올릴 경우엔 아비학은 김광철, 어미학은 김명숙, 새끼학은 주로 강선영이 맡아 했다. 이때의 고생스러운 것은 그후 춤꾼으로 입신하기까지 온갖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는 인



사진 7. 천안 피난시절 극단공연 때



사진 8. 강선영 고전무용 연구원 개원기념(가운데)

내심의 원천이 되었다.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도 없었다고 말한다.

한성준선생은 말년에 태평무를 특히 아끼셨다. 타계하시기 직전 도 태평무 의복으로 수의를 해 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큰 애착을 보이셨다. 그런 춤으로 제자 강선영이 198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받았으니, 늦게나마 스승에게 제자의 도리를 다 한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한다.



사진 9.
오사까(大阪)지부 강선영
한국고전무용 연구원(1963)



사진 93. 오사까 연구소 (교포들)



사진 11. 춘향과 이도령(1957, 오른쪽이 조영자)



사진 12. 동경 산계이 흠에서 모운숙작 상제의 한 장면

1943년 3월 부민관에서 가진 한성준무용발표회에 승무·살풀이춤·태평무·학무 등을 추었고, 창극 홍보전, 삼국지, 춘향전 등의 안무를 맡아 하면서 국악계에도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1944년 한성준 문하생과 일본 전국 및 만주 순회 공연을 끝으로 무용 활동은 잠시 중단되었다. 그후 22세 때 한산 이씨 집안으로 시집가서 살다가 1951년 을지로에 강선영무용연구소 간판을 내걸며 활동을 재개했다. 이후 춤은 오늘날까지 인생의 동반자이자 전부라 한다.



사진 13. 종합예술제 때 한영숙, 강선영, 이인범



사진 14. 1965년 서울시 문화상 수상(어머님과 함께)

그 동안 초혼, 모란정, 수로부인, 이조여인상, 원효대사 등을 발표해 호평을 받았으며, 세계 각국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춤으로 문화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러한 공로가 인정되어 1965년 3월 서울시 문화상, 1973년 4월 국민훈장 목련장, 1976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연예부분 등을 수상했다.

강선영은 그간 100여 회 이상 공연을 가졌다. 그간의 공연비 마련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무용 공연 발표를 돈을 들여서 한 것이 16회 정도 했는데 모두 빛을 내서 했어. 빛장이가 오면 다락으로 숨고 했지. 애기 아빠가 내 공연비 대느라고 집 3채를 날렸어. 참 고맙지.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애”



사진 15. 경도 아세아 영화제 초혼 문화부문상 수상



사진 16. 일본경도 초혼 시상 장면

중요한 공연 내용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1937년 3월	한성준고전무용연구소 입소
1937년~38년	한성준선생께 승무사사
1943년 3월	한성준문하생 발표회에서 태평무 공연
1944년	일본 전국 및 만주 순회공연에서 태평무 공연
1953년 10월	강선영 제1회 신작 발표회,
	1955년 10월 제2회 신작 발표회
	1957년 11월 제3회 "
	1959년 2월 제4회 "
	1964년 12월 제5회 "
	1969년 12월 제6회 "
1954년	미국 닉슨 부통령 환영 무용공연에서 태평무 공연
1960년 5월	프랑스 파리 국제민속예술제 참가 태평무 공연
1960년 6월	스위스 제네바 크랑카지도 극장 및 T.V에서 태평무 공연
1961년 4월	아시아문화협력회 초청 문화사절로 일본 전국순회 공연
1961년 11월	국제여학사회 초청 동남아무용제 동경공연
1964년 9월	강선영무용단 일본 교포 위문공연
1968년 3월	강선영무용단 대만 순회공연
1970년 11월	강선영무용단 일본 순회공연
1971년 8월	한일국교정상화 5주년기념공연에서 태평무 공연
1971년 9월	일본 T.V에서 태평무 특별 출연
1972년 2월	MAIEGAA PATA 총회 무용공연

1972년 8월	독일 뮌헨올림픽 한국민속예술단 지도위원 및 세계 24개국 순회공연
1973년 2월	미국 L.A 3.1절 기념공연에서 태평무 출연
1973년 9월	독일·영국 무용 순회공연에서 태평무 출연
1975년 3월	일본 오끼나와(庶縵) 한국인 위령탑 건립 기념공연 에서 태평무 출연
1977년 6월	정부파견 한국민속예술단지도위원으로 유럽 10개국 순회공연
1978년 1월	한국인 하와이 이민 75주년 기념공연에서 태평무 출연
1978년 9월	정부파견 중남미 및 중동·아프리카 24개국 순회공연
1979년 5월	강선영무용단 오오사까(大阪)공연에서 태평무 출연
1980년 2월	강선영무용단 호주 문마공연에서 태평무 출연
1980년 10월	강선영무용단 중동 아랍토토국 두바이 공연
1981년	강선영무용단 중동 아랍토토국 아부다비· 바레인 공연
1982년 6월	세종문화회관주최 명무전 공연에서 태평무 출연
1983년 10월	외무부파견 중동지역순회 민속무용공연
1987년 12월	부천시립회관 개관공연에서 태평무 공연

한편 강선영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198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지내고 있으며 14대 국회의원 문공위원을 역임했다.

춤꾼으로 갖기 어려운 많은 명예를 누렸다. 평범한 삶으로는 도저히 이루어 내기 힘들었을 강선영의 오늘은 고통과 인내의 세월과 맞바꾼 것이다. 행운으로 돌리기에 너무 많은 노력과 희생이 투여된 그런 삶인 것이다. 젊음을 온통 춤으로 불태운 인생이다.

강선영은 지금은 태평무로 예능보유자의 명예를 걸고 있는 만큼 이 춤을 온전히 전승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옛날 한성준이 추던 극무용으로서의 한량무와 그외 알려지지 않은 춤들을 한데 묶어 무대에 올려 볼 생각이라고 한다.



사진 17. 50세 때 모습



사진 1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진 19. 제자들과 함께(좌로부터 양성옥, 이명자, 강선영, 이현자, 고선아)

Ⅳ. 태평무의 형식

1. 무복

태평무의 무복은 남성 무용수인 경우 바지 저고리에 흰색 도포를 입고 그 위에 흰색 전복을 입은 다음 붉은 안감을 댄 노란색 곤룡포를 입는다. 머리에는 검은색 관을 쓴다.



사진 20. 바지저고리



사진 21. 흰색 도포



사진 22. 전복



사진 23. 곤룡포

여성 무용수인 경우 조선시대 왕비의 예복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궁중여복을 입고 춘다. 강선영이 입고 추는 무복은 우선 버선을 신고 고쟁이, 바지를 입은 다음 남색 안치마에 홍색 겹치마를 입는다. 그리고 상의는 당의(唐衣)를 입는다.



사진 24. 남색 안치마



사진 25. 홍색 겹치마

당의의 겹은 녹색바탕에 수를 놓았으며 고름은 자주색이고 옆고름을 노란색과 분홍색 2개를 달았다. 가슴에는 흉배가 있고 앞자락과 뒷자락은 같다. 당의 위에는 흰색 바탕에 수를 놓은 활옷이라 부르는 원삼(圓衫)을 입는다. 손에는 한삼(汗衫)을 끼고, 머리는 수식이 많고 화려한 조선시대 왕비의 큰 머리로 장식한다.



사진 26. 당의를 입은 모습



사진 27. 당의를 입은 뒷모습



사진 28. 당의 앞모습



사진 29. 당의 뒷모습



사진 30. 원삼 앞모습



사진 31. 원삼 뒷모습



사진 32. 버선



사진 33. 한삼



사진 34. 머리 모습



사진 35. 머리 안모습



사진 36. 원삼을 입은 모습



사진 37. 원삼을 입은 뒷모습

2. 춤 장단

태평무 장단은 경기도 도당굿 장단을 승화시킨 것이다. 반주 음악은 징, 장고, 뽕가리, 바라, 대금, 해금, 피리로 연주하며 낙궁, 터벌림, 올림채, 도살풀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악은 매우 다채롭고 복잡하며 3박, 4박, 6박, 10박, 12박 등으로 뒤섞인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음악이 점점 빨라지면서 2, 3박이 복잡하게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1) 낙궁 3장단

임금과 왕비가 행차하는 형식을 빌어서 음악도 궁중음악을 차용해서 썼다. 낙궁장단은 1장단에 8박으로서 무대 앞에서 나아갈 때 연주되는 곡이다.

(2) 터벌림(반설음) 64장단

터벌림 장단이라고도 하며 반설음 장단이라고도 한다. 반설음이란 말 뜻은 분명하지 않으나 터벌림 장단은 터벌림 거리에서 추는 장단이라는 뜻이다. 터벌림이란 큰굿을 하기전에 굿터를 정화하는 뜻으로 춤을 벌인다는 뜻이다. 3분박 5박자, 즉 서양음악의 박자로 표기하면 8분의 15박자이며 2장단이 한 짝을 이룬다.

터벌림 과장에서 추는 춤은 무게가 있다. 10박의 박자에 맞추어 추기 때문에 깊이와 폭이 넓다. 한삼자락을 너울거리면서 묵직한 발돌림으로 위엄스럽게 추기 위한 과장이다. 이 과장은 반설음 46장단 10박과 짝은 터벌림 즉 섭채가락 18장단 10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섭채가락은 터벌림을 몰아치는 것인데 왕비가 옷을 벗고서 경쾌한 춤을 추는 과장에 반주된다. 짝은 터벌림 가락에 몸과 마음을 자진발돌음과 디딤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3) 올림채

올림채라는 말은 쳐올리는 장단이라는 뜻이며 이것은 신을 놀려 좌정시킨다는 것이다. 이 장단은 빠른 3박과 2박이 2+3+3+2의 형태로 짜여진 박자로 서양음악식으로 표기하면 8분의 10박자의 장단이다.

섬채가락에서 경쾌하게 추던 것을 올림채 가락에서는 더욱 흥겹고 신바람나게 추는 과장이다. 이 가락을 3박자 개념으로 6번 연주하면 18박자가 되고, 5박자 개념으로 3번 반복하면 3박자가 남는다. 터벌림이 끝나고 부터 24박 끝까지가 모두 올림채이다.

올림채Ⅰ에서 올림채Ⅱ로 넘어가는 과장은 절정에 달하는 과장으로 발동작이 더욱 빠르게 움직인다. 이 가락은 잦은 올림채라고도 한다.

(4)도살풀이 60장단

경기도 남부 무가에 쓰이는 장단으로 매 박마다 징이 한 번씩 들어간다. 2분박의 보통 빠른 6박자로 서양음악식으로 표기하면 4분의 6박자가 된다.



사진 38. 반주 장면—해금: 김무경(48), 대금: 이철주(47), 피리: 김찬섭(50), 장고: 김덕수(45),
팽과리: 김동원(32), 징: 강민석(38), 바라: 한상욱(26)



사진 39. 반주 장면

이 과장의 춤은 꺾꺾하고 흥겹다. 그리고 모든 맺힌 것을 풀어 몸 전체로 승화시키는 과장이다.

(5) 잣은 도살풀이 20장단

잣은 도살풀이는 4박으로 연주하며 도살풀이보다 더 흥겹게 춤을 춘다.

(6) 터벌림 5장단

터벌림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과장으로 장단 또한 앞에서 연주했던 것과 같다.



사진 40. 반주 장면

사진 41.
장고(김덕수)



사진 42. 광과리(김동원)



사진 43. 대금(이철주)

태평무 장단보(太平舞 長短譜)

(채보 : 김덕수)

1. 낙궁

괘과리

8 24
1

○		○		○			
---	--	---	--	---	--	--	--

괘 괘 괘

3×8 ♩. 쉼. ♩. 쉼. ♩. 쉼. 쉼. 쉼.
8

징

8 24
1

○		○		○			
---	--	---	--	---	--	--	--

징 징 징

3×8 ♩. 쉼. ♩. 쉼. ♩. 쉼. 쉼. 쉼.
8

장고

8 24
1

●		●		●		○	
○		○		○			

덩 덩 덩 다르르르...

3×8 ♩. 쉼. ♩. 쉼. ♩. 쉼. ㄱ. 쉼.
8 ♩. 쉼. ♩. 쉼. ♩. 쉼. 쉼. 쉼.

바라

8 24
1

○		○		○			
---	--	---	--	---	--	--	--

철 철 철

3×8 ♩. 쉼. ♩. 쉼. ♩. 쉼. 쉼. 쉼.
8



호흡과 움직임

2. 터벌림(반설음)

① 내는 가락

팽파리

4 30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갱 갱 갱 갱 개갱 개개갱 갱 갱 개갱 개개갱 개

3+2+3+2 4

징

4 30
1

○			○		○	○		○	
---	--	--	---	--	---	---	--	---	--

징 징 징 징 (징)

3+2+3+2 4

장고

4 30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덩 덩 덩 덩 따닥 따따궁 궁 따 따궁 따닥 따

3+2+3+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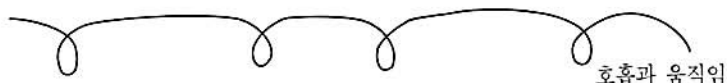
바라

4 30
1

○	○		○		○	○		○	
---	---	--	---	--	---	---	--	---	--

철 철 철 처철 철 철

3+2+3+2 4



호흡과 움직임

③ 삽채(터벌림을 빠르게 조여 치는 것)

팥과리

4 30
1

갱

갱

갱 개 갠

지개 바개

개갱

갱

갱

개 갠

지개 바개

개갱

갱

갱

개 갠

지개 바개

개갱

갱

갱

개 갠

지개 바개

개갱

갱

갱

개 갠

지개 바개

개갱

갱

갱

개 갠

지개 바개

개갱

갱

갱

개 갠

지개 바개

개갱

갱

갱

개 갠

지개 바개

개갱

갱

갱

[illegible]

3+2+3+2 8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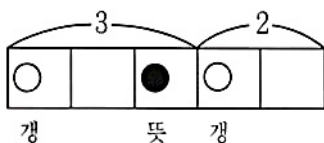
3+2+3+2 8

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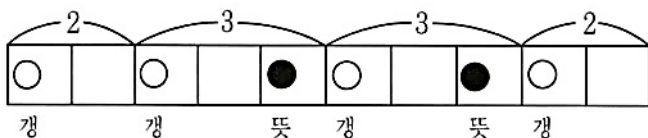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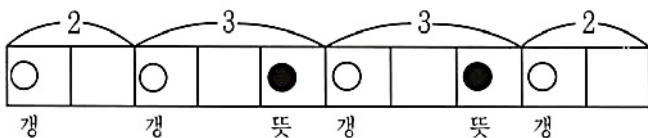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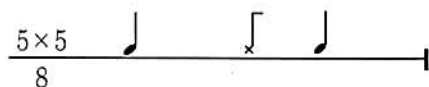
4	30								
○	○		○		○○	○		○	
철	철		철		처철	철		철	

호흡과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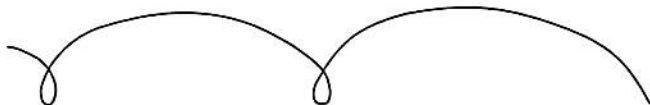
3. 올림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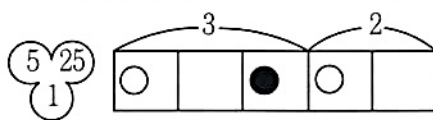


팽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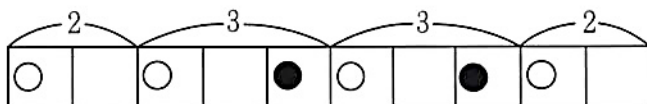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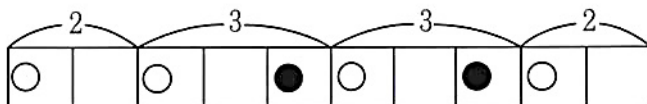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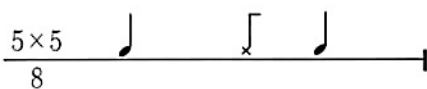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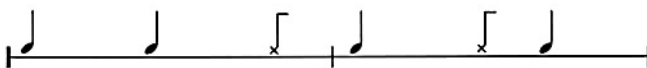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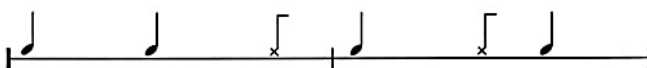


호흡과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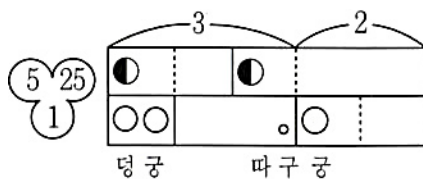


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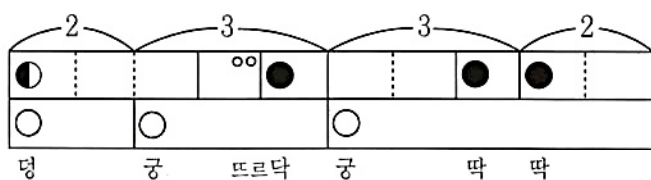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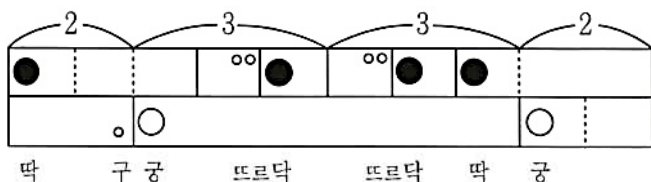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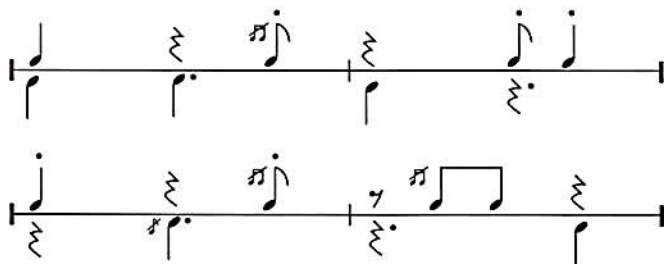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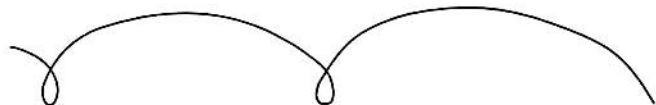


호흡과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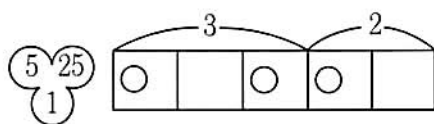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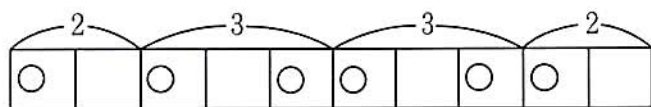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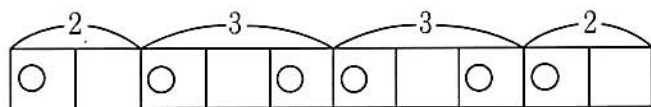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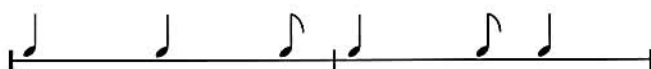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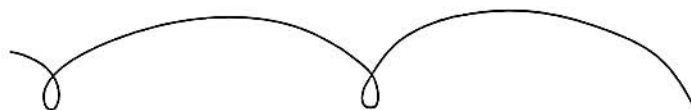
장고



호흡과 움직임



바라



호흡과 움직임

①

올림채 물이

① 본가락(4회 반복)

2 10
1

2 3 3 2

개 개 뜻 개 뜻 개 팽파리

5×2
8

2 10
1

2 3 3 2

징 징 지 ㅂ 징 지 ㅂ 징

5×2
8

2 10
1

2 3 3 2

딱 구 궁 따 따 궁 따 따 궁 장고

5×2
8

2 10
1

2 3 3 2

철 철 처 철 처 철 바라

5×2
8



②맷이가락(2회 반복)

2 10 1

2 3 3 2

갱 갯 뚫 갯 뚫 갯

5 × 2 8

팽과리

2 10 1

2 3 3 2

징 징 지 뉘 징 지 뉘 징

5 × 2 8

뉘 뉘

징

2 10 1

2 3 3 2

뎡 뎡 더 궁 더 궁

5 × 2 8

장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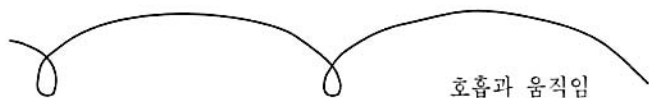
2 10 1

2 3 3 2

철 철 처 철 처 철

5 × 2 8

바라



호흡과 움직임

2

4 12
1

3×4
8

똥 댕 똥 댕 똥 댕 똥 댕 땡과리

장고

더 더 파 다드 락 파 더 더 파 다드 락 파

호흡과 움직임

3 (2회 반복)

3 12
1

3×4
8

똥 똥 댕 똥 똥 댕 똥 똥 댕 땡과리

호흡과 움직임

4 24
1

더 더 더 더르 덩 더 더 더 더 더르 덩 더 장고

호흡과 움직임

6

5 12
1

●	●	○		○		●	○		○		
---	---	---	--	---	--	---	---	--	---	--	--

뜻 뜻 갯 갯 뜻 갯 갯 팽과리

2×3+3×2 8

5 12
1

●	●	○		○		●	○		○		
---	---	---	--	---	--	---	---	--	---	--	--

짓 짓 징 징 짓 징 징 징

2×3+3×2 8

5 12
1

●	●			●				●			
---	---	--	--	---	--	--	--	---	--	--	--

장고

2×3+3×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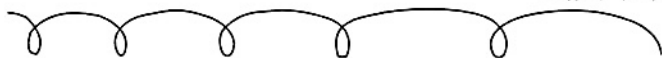
5 12
1

○		○		○		○		○			
---	--	---	--	---	--	---	--	---	--	--	--

철 철 철 철 철 바라

2×3+3×2 8

호흡과 움직임



4. 도살풀이

① 도입장단

광과리

6 48
1

○	○	○	○	●		●	●	○	○	○	○
---	---	---	---	---	--	---	---	---	---	---	---

광 광 그광광 광 꺽 꺽 꺽 광 개광광 은광광 광

2×6
8

징

6 12
1

○		●	●	○		●	●	○	●	○	●
---	--	---	---	---	--	---	---	---	---	---	---

징 짓 짓 징 짓 짓 징 짓 징 짓

2×6
8

장고

6 48
1

●	●	○	○	○	○	○	○	○	○	○	○
---	---	---	---	---	---	---	---	---	---	---	---

덩 덩 더더더 덩 딱 국 따 따구 궁 따따 국기따따

2×6
8

바라

6 12
1

○				○				○		○	
---	--	--	--	---	--	--	--	---	--	---	--

철 철 철 철

2×6
8



호흡과 움직임

② 본가락

팽과리

6 48
1

○		●	●	○		●	●	○	○	○	○	○
---	--	---	---	---	--	---	---	---	---	---	---	---

갱 갯 갯 갱 갯 갯 갱 개그래 은그래 갱

2×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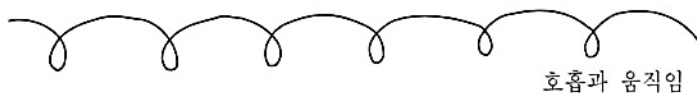
장고

6 48
1

◐	◐	●	◐	●		◐	◐		◐	◐	◐	●
○					●			○			●	

덩 기 닥 기 닥 기 닥 국 따 따 구 궁 따 따 국 기 닥 닥

2×6
8



— 징과 바라의 박자는 ① 도입장단과 같다.

5. 잣은 도살풀이

팽과리

4 12
1

	●	○		●	○		●	○		●	○
--	---	---	--	---	---	--	---	---	--	---	---

똥 갱 똥 갱 똥 갱 똥 갱

3×4
8

징

4 12
1

○			○			○			○		
---	--	--	---	--	--	---	--	--	---	--	--

징 징 징 징

3×4
8

장고

4 12
1

●		●	●		●	●		●	●		●
	○			○			○			○	

딱 궁 따 딱 궁 따 딱 궁 따 딱 궁 따

3×4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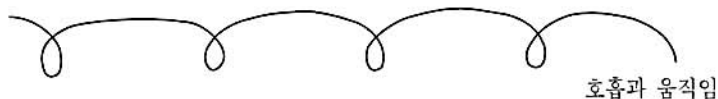
징

4 12
1

○			○			○			○		
---	--	--	---	--	--	---	--	--	---	--	--

첼 첼 첼 첼

3×4
8



호흡과 움직임

3. 춤 구성

1) 낙궁 과장

태평무의 도입부로 오른발 뒷꿈치부터 앞으로 내딛고 오른발과 왼발을 다시 내딛고 앞으로 나간다. 오금을 죽이며 추는 춤사위는 섬세하고 우아하며 절도가 있다.



사진 44. 낙궁 과장



사진 45. 태벌림 과장

2) 태벌림 과장

앞부분에서는 느리게 추다가 뒤로 가면서 춤사위가 차츰 빨라지는 발전적 단계를 지난다. 이는 마치 한국인의 심성표출이라 할 수 있으며 극히 한국적인 표현방식이다. 다양한 몸짓과 손발의 움직임 이것도 흥과 멋과 신명의 감정 표출인 것이다. 흥을 일으키는 데는 어깨와 손끝이 작용한다. 손끝의 움직임 여하에 따라 발디딤새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진다. 손의 움직임 그것은 한삼 자락이 공간을 차고 나르게 하며 이에 응하는 어깨는 제멋을 살린다. 발사위 역시 그러하다. 오이씨 버선발이 움직이듯 하다가 멈추고, 멈추듯 하다가

움직인다. 이렇듯 춤은 움직임 속에 멈춤이 있고 멈춤 속에 움직임의 묘미가 있다. 이것은 춤의 동작이 동작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높은 정신세계에 닿아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우리의 춤은 춤추는 이와 보는 사람까지도 정신적 깊이에 도달해 있지 않고서는 제대로 볼 수 없는 까다로움이 있다.

3) 올림채 과장

올림채 과장은 감고 푸는 사위와 겹걸음 사위가 주조를 이룬다. 긴장과 이완을 적절히 배합하여 감고 풀고 어르고 당기는데 능란함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춤의 묘미가 우러나는 것이다.



사진 46. 올림채 과장



사진 47. 도살풀이 과장

4) 도살풀이 과장

도살풀이 과장 역시 어르고 여미고 감고 재치고 엮는 사위가 한 데 어우러진 맛과 기교의 장이다. 따라서 태평무는 우리나라 춤 중에서 가장 기교적이고 개성적이며 예술적인 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춤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미적 공감대를 형성해 주며 수동적인 감상만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5) 터벌림 과장

마무리를 위한 터벌림 과장이다. 극히 짧은 느낌을 주지만 짧은 속에서도 환희의 극치를 충분히 맛볼 수 있다. 태평무는 나라의 태평을 기원하는 춤이며 따라서 맺히는 춤이 아니라 푸는 춤이다. 모든 설움과 아픔을 털어 버리면 흥이 절로 나고 신명이 샘솟는다. 태평무는 인간의 맺힘을 풀고나서 도달하는 흥과 신명의 경지에 이르는 춤이다.



사진 48. 터벌림 과장

4. 춤 사위

1) 팔동작

(1)일자펴기

양팔 옆으로 약간 올려
펴 들기



사진 49.



(2)뿌림 사위

한삼이나 맨손으로 여러
방향에 뿌리는 사위

● 위로 뿌림 사위

양손 또는 한손을 머리 위로
높이 쳐들어 좌우로 뿌리는
사위

사진 50.

- 옆으로 뿌림 사위
한 손을 옆방향으로
뿌리는 사위



사진 51.



- 돌려 뿌림 사위
손등으로 돌려 뿌리는
사위

사진 52.

- 끼어서 뿌림 사위
한손을 반대쪽 겨드랑이에
끼었다 앞으로 풀어내며
뿌리는 사위



사진 53.



- (3) 끼고 감는 사위
오른손을 왼쪽 허리에
끼고 왼손을 내려 오른 손을
덮어 감는 사위

사진 54.

(4)제치는 사위
손등쪽으로 손목을
돌리거나 뿌리는 사위



사진 55.



(5)엷는 사위
손바닥쪽으로 손목을 돌리거나
뿌리는 사위

사진 56.

(6)앉는 사위
손을 어깨(또는 반대쪽 어깨)
에 얹는 사위



사진 57.



(7)걸치는 사위
한삼을 다른쪽 팔 위나
어깨에 걸치는 사위

사진 58.

(8)여미는 사위
양손을 앞 뒤 등과 배에
붙여 여미거나 가슴 앞에
붙여 여미는 사위



사진 59.



(9)엇거는 사위
양손을 교차하는 사위

사진 60.

(10)끼고 드는 사위
한손을 허리에 끼고 다른
손을 드는 사위



사진 61.



(11)감는 사위
손목 놀림으로 한삼을 감
아 돌리는 사위

사진 62.

(12) 감고 푸는 사위
(음과 양의 사위)
돌리면서 양손을 머리
위에서 번갈아 감고
풀어 돌리는 사위



사진 63.



(13) 손목 놀림 사위
손목을 앞었다 뒤집었다
하는 사위

사진 64.

(14) 들 사위

한손 또는 양손을 아래에서
어깨 높이까지 드는 사위



사진 65.



(15) 올릴 사위

한손 또는 양손을 어깨 높이
위로 쳐드는 사위

사진 66.

(16)끼는 사위
한손 또는 양손을 허리나
겨드랑이에 끼는 사위



사진 67.



(17)치마 잡는 사위
한손 또는 양손으로 치마를
불잡는 사위

사진 68.

(18) 휘젓는 사위

양손을 좌우 또는 상하로
휘젓는 사위



사진 69.



(19)헤엄치는 사위

양손을 옆구리 부분에서
지느러미처럼 너울거리는 사위

사진 70.

(20)내릴 사위

든 팔을 서서히 내리는 사위



사진 71.



(21)양팔 폼다 모으는 사위
양팔을 좌우로 폼다가 가슴
앞으로 모았다 반복하는 사위

사진 72.



사진 73.

(22) 펴는 사위

여미거나 모은 손을 펴는 사위

2) 발동작

(1)반원 돌림 걸음

발을 반원 돌려 한걸음
내딛는 걸음



사진 74.



반원 돌림 걸음
발을 반원 돌려 한걸음
내딛는 걸음

사진 75.

(2) 겹걸음

한걸음 내딛고 뒷발이 따라
붙는 동시에 다시 앞발이
나가고 반대발부터 똑같이
겹으로 걸어가는 걸음
(two step)

① 앞겹걸음



사진 76.



② 뒤겹걸음

사진 77.

(3) 따라 붙이는 걸음
한쪽 발을 내딛고 뒷발을
따라 붙여 나가는 걸음



사진 78.



(4) 진걸음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가는 걸음

사진 79.

(5) 무릎 들어 걷기

무릎을 들면서 도듬새를
주며 걷는 걸음



사진 80.



(6) 뒷걸음 짚기

뒷꿈치를 앞으로 짚어
딛는 걸음

사진 81.

(7) 앞꿈치 짊고 뒷꿈치
디딤

앞꿈치를 앞으로 짊었다가
바로 뒷꿈치로 딛는 사위



사진 82.



(8) 뒷꿈치 짊어 들기
한발을 축으로 다른 뒷꿈치를
 짊으며 도는 사위

사진 83.

(9)빙글 도는 사위
한 장단 또는 반장단 동안에
서서히 도는 사위



사진 84.



(10)빙글 도는 사위
한박자 동안에 빨리
도는 사위

사진 85.

(11) 무릎을 들어 도는
사위

무릎을 들어 도듬새를
하면서 걸어 돌거나
빙글 도는 사위



사진 86.



(12) 바른 걸음
바르게 걷는 걸음

사진 87.

(13) 느리게 발들기

오금을 죽였다 떼면서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사위



사진 88.



(14) 발 옆으로 밀어주기
발을 좌우로 번갈아
옆으로 밀어주는 사위

사진 89.

(15) 발 옆으로 옮겨

드는 사위

한발을 옆으로 크게 옮겨
딛고 다른 발로 따라 붙여
중심 이동하는 사위



사진 90.



(16) 엇붙임 사위

한발을 다른 발 앞에 엇붙여
방향을 바꾸거나 도는 사위

사진 91.



사진 92.

(17) 음과 양의 발돌림 시위

무릎을 들면서 오른발을 안으로 감아 딛고 왼발은 밖으로 원을 돌면서 딛는다.

3) 온몸 동작



사진 93.

(1)어르는 사위

양손 또는 한손을 들고 어르는 사위

(2)학 사위

몸을 앞으로 숙이며 한발을
들고 양손을 뒤로 모아 드는
사위



사진 94.



(3)몸통 트는 사위

팔 동작을 하면서 몸통을
좌우 또는 한쪽으로 트는
사위

사진 95.

(4) 숙이는 사위

한발 앞에 내딛으며 허리를
굽혀 앞으로 숙이는 사위



사진 96.



(5) 앉는 사위

한발을 옆으로 크게 내딛으며
비스듬히 앉거나 한발은 무릎을
꿇고 다른 발은 무릎을 세워
앉는 사위

사진 97.

V. 태평무의 특징

한성준의 춤을 전수한 강선영에 의하면 태평무는 춤장단만 익히는데 3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통춤을 학습할 때 먼저 승무·살풀이춤을 배운 다음 태평무를 추는 것으로 보아 이 춤이 배우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여 태평무를 출 수 있게 되면 비로소 춤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태평무의 춤사위는 승무의 장삼 뿌림과 경기 무속무용, 학춤에서 나오는 춤사위 등이 엮보이나 그것 보다는 겹걸음·따라 붙이는 걸음·잔걸음·무릎 들어 걷기·뒷꿈치 짚기·앞꿈치 꺾고 뒷꿈치 디딤·뒷꿈치 짚어 들기·옆으로 밀어 주기 등 발디딤의 기교가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태평무가 다른 춤들과 구별되는 점은 기교 넘치는 발동작과 힘있게 뻗는 손동작에 있다. 살풀이춤이나 승무는 발을 사뿐히 들어서 뒤꿈치를 딛으며 일직선으로 발을 놓지만 태평무는 처음 시작하는 발로 원을 그리지 않으면 장단을 맞출 수가 없다. 잔발을 딛고, 발을 돌리며 굴리고, 잦은 깨꿈발을 띠고 잔가락을 놓아야만이 발짓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발동작은 장단 사위라고 하는 독특한 사위로 추는데 발을 옮길 때 장단 사이로 다니면서 춘다. 처음 왼발이 반원을 그리면서 장단을 먹고 들어간다. 그리고 바른발로 장단을 맞추고 다시 장단에 맞추어 춘다. 장단이 먼저냐 춤이 먼저냐 하는 말이 있는데 장단에 따라서 춤을 춘다고 할 수 있다. 태평무는 장단이 어렵다. 일반적인 춤은 장단 사이로 동작이 들어가면 춤을 못추는 사람이다. 그러나 태평무는 장단 사이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태평무의 특징이다.

태평무를 출 때는 발이 바닥에 붙어 있으면 안된다. 얼마나 떠있느냐 할 정도로 태평무의 발동작은 화려하다. 36박이라는 독특한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자면 발 뒷꿈치, 앞꿈치, 뒷꿈치 순으로 3번

사진 98. 발 뒷꿈치



사진 99. 앞꿈치



사진 100. 뒷꿈치 순으로 3번 내지 4번을 다다닥 뒷꿈치로 찍고 나서 시작한다.



사진 101. 먹는 사위

내지 4번을 다다닥 뒷꿈치로 찍고 나서 시작한다.〈사진 98, 99, 100〉

한편 승무나 살풀이춤에서는 한바퀴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태평무는 반쯤 돌다가 획돌리는 반돌림이라는 것이 또한 특징이다. 또 무릎을 제치고 손동작을 하는데 이것을 '먹는 사위'라고 한다. '지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태평무에서는 '먹는다'라고 한다.

무릎을 굽히면 팔도 자연 움직인다.〈사진 101〉

손동작도 다른 춤은 귀 밑에서 주로 추지만 태평무는 귀 위로 올라가며 손이 쳐져서는 안된다.〈사진 102〉 또 손을 엮을 때도 밑으로 내리면서 춤이 딱딱하게 느껴질 정도로 옆으로 확 펼친다. 그리고 한삼을 뿌릴 때 겹쳐지도록 한다. 즉 겹사위인데 손을 겹쳐서 춘다.



사진 102. 손이 올라가고 쳐져서는 안된다.

또한 태평무에서는 엮고 제치는 사위가 있는데 이것은 음양을 표현한 것이다. 바른손을 엮으면 음, 왼손을 제치면 양, 발도 곡선으로 돌리면 음, 직선으로 나아가면 양을 표현한다. 한편 일반적인 춤은 부드럽고 우아하게 추지만 태평무는 아주 근엄하게 가만히 서있는 동작도 있다. 즉 밑에서부터 무게있게 나가다 세상을 포근하게 안아 주는 듯한 동작을 취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태평무의 특징은 동작이 섬세하고 우아하며 동작 하나 하나에 절도가 있고, 특히 발디딤이 다양하고 발을 구르는 동작은 이 춤만이 갖고 있는 멋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태평무는 우리 나라 춤 중에서 가장 기교적인 발짓춤이라 할 수 있고, 방안 춤으로 승무·살풀이춤과 더불어 정중동(靜中動)의 미적 형식을 가진 완벽한 춤이라고 할 수 있다.

Ⅵ. 태평무의 무보(舞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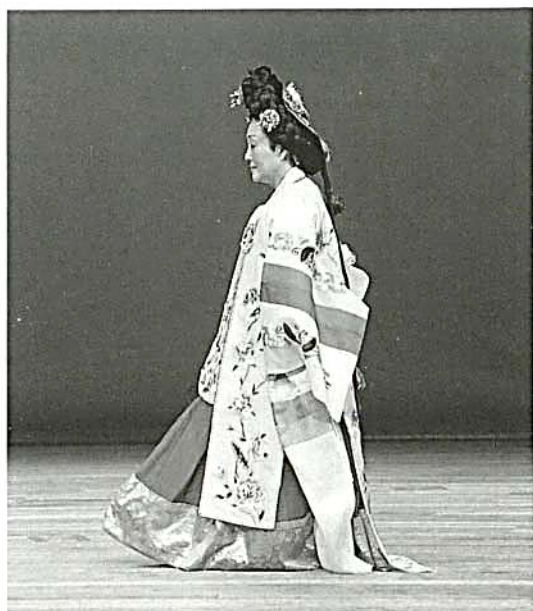
1. 낙궁 (3장단)

등장 자세—양팔을 옆으로 약간 비껴 들고 등체는 의젓하게 세우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면서(상수 뒤에서 하수쪽으로 본다) 중앙으로 걸어 나온다.



〈1〉 1장단—
〈발 원돌림사위〉

- 1박: 오른발을 뒤꿈치부터
앞으로 내딛고
- 2박: 왼발을 내딛고
- 3박: 오른발을 다시 내딛고
- 4박: 오금을 죽인다.



〈2〉 2장단—
〈발 원돌림 사위〉

왼발부터 걸어나가
오금새를 한다.



〈3〉 3장단—

오른발부터 전진하여
8박에 오금을 죽인다.

2. 터벌림 (64장단)



〈4〉 1장단— 〈한손 들 사위〉

낙궁 3장단에 중앙까지
등장하여 왼손을 천천히
앞으로 들면서



〈5〉 서서히 몸을 돌려(90° 회전) 앞을 향한다. 이때 왼손을 앞으로 든 상태가 된다.



〈6〉 2장단—
〈한손 들 사위〉

왼손이 앞을 향해 올려진
상태에서 1장단 동안에
오른손을 서서히 올려



〈7〉
양손이 비껴 앞으로
벌려든 상태가 된다.



〈8〉 3장단—
〈양손 올림 사위〉
〈옮겨 딛는 사위〉

약간 도듬새(호흡)를 하며
더욱 활짝 양팔을 폈다가
머물고



〈9〉
〈끼고 감는 사위〉

1박에 오른발·왼발을
비껴 앞으로 빠르게
내딛으며 오른손을 왼쪽
겨드랑이로 끼고



〈10〉

1박에 다시 오른발을
오른쪽 앞으로 내딛으며
왼손을 내려 긴 오른손을
감는다.



〈11〉 4장단—
〈한손 들 사위〉
〈무릎 들기〉

오른발이 앞으로 내딛어
굽힌 상태에서



〈12〉
왼손에 감겨 있는 오른손을
천천히 빼내어 1장단 동안
오른쪽 허리 높이보다
조금 높게 든다.



〈13〉



〈14〉 5장단—
〈올릴 사위〉

왼손은 허리에 낀 채로
오른손을 계속 올리면서
몸도 따라 펴고



〈15〉
끝박자에 한삼을
머리 위로 뿌려 준다.



〈16〉 6장단—
〈무릎들어 옆으로
 옮겨 딛기〉
〈무릎 들기〉

오른발을 왼돌려 들어 딛기



〈17〉
8박자에 옆으로 딛고
 왼발이 따라 붙는다.



〈18〉 7장단—
〈한발 따라 던는 걸음〉

다시 오른발을 들어 비껴
오른쪽으로



〈19〉
4박자 한 걸음 가고
왼발 따라 붙으면 오금을
죽인다.



〈20〉
4박자에 또 오른발을
한 걸음 내딛고 왼발을 따라
붙인다.



〈21〉
1박에 또 오른발을 내딛고
멈춘다.



〈22〉 8장단—
 〈위로 뿌림 sawi〉
 〈빙글 도는 sawi〉
 〈끼고 감는 sawi〉

오른손을 앞으로 뿌려
 양손 들고 제자리에서



〈23〉
 왼쪽으로 한바퀴 돌아



〈24〉



〈25〉
9박자에 오른손을 왼쪽
겨드랑이에 끼고



〈26〉

왼손을 내려 감는다.



〈27〉 9장단-

〈몸통 트는 사위〉

〈한손 들 사위〉

몸을 왼쪽으로 틀면서
감은 손을 풀어 오른손은
허리로, 왼손은 허리보다
약간 높이 올린다.



〈28〉 10장단—
〈올린 사위〉
〈손목 올릴 사위〉
계속 왼손을 들어



〈29〉



〈30〉
머리 위로 쳐들어



〈31〉
손목을 돌려 한삼이
뒤로 간다. 끝박에
오금을 죽여 왼발을 들
준비를 한다.



〈32〉 11장단—
〈무릎 들어 돌리는 사위〉
〈따라 붙이는 걸음〉

왼발을 들어 왼쪽으로
1박에 한 걸음 나가고,
4박에 오른발이 따라 붙고



〈33〉
10박에 오금을 죽인다.



〈34〉 12장단-
〈따라 붙이는 걸음〉
〈옆으로 뿌림 사위〉

왼발을 왼쪽 비껴 앞으로
내딛고, 오른발을 따라
딛기를 세걸음 나가고



〈35〉



〈36〉



〈37〉



〈38〉



〈39〉

네걸음 때 머리 위의
왼손을 옆으로 뿌린다.



〈40〉 13장단-

〈엷는 사위〉

〈도는 사위〉

오른쪽 방향으로 몸을 약간
돌리며 두팔을 감을 듯
뿌리다가



〈41〉

왼손을 앞으로 (몸 안쪽으로)
엷어 뿌려 감고



〈42〉

두팔을 펴서 오른발 딛으며
왼쪽으로 반바퀴 돌아 뒤를
보고 선다.



〈43〉 14장단—

〈양손 위로 뿌릴 사위〉

뒤로 물러나면서 두손을
위로 뿌려 주고



〈44〉

〈여미는 사위〉

다시 가슴 앞으로 모아
엇걸어 뒤집어 뿌린다.
(뒷걸음 1박 1걸음씩
네걸음 물러난다).



〈45〉

천천히 내려



〈46〉
양팔을 옆으로 편다.



〈47〉 15장단—
〈어르는 사위〉
두팔을 모은 상태에서
몸을 들어 오른쪽 기울여
어르고



〈48〉

다시 왼쪽으로 기울여
어르고, 빠르게 오른쪽, 왼쪽
어르고 크게 오른쪽으로
지긋고(어르고) 바른 자세를
하여 돌음새 한다.



〈49〉 16장단—
〈오금새·돌음새〉
〈한 발 들어 옮겨 딛기〉
〈따라 붙이는 사위〉

오른발 들어 약간 사선으로
비껴 앞으로 나간다. 뒷발을
붙이며 약간 무릎을 굽힌다.
이때 팔의 방향은 약간
사선이 된다.



〈50〉 17장단—
〈몸통 틀어 내딛는 사위〉
〈따라 붙이는 겹걸음〉

왼발을 들어 왼쪽 비껴
앞으로 한 걸음 나가고



〈51〉
몸의 균형을 바꾸어
오른발도 오른쪽으로
겹걸음 나간다.



〈52〉 18장단-
〈겹걸음〉
〈양손 여며 내리는 사위〉

발을 드는 쪽으로 양손을
약간 비껴 든 상태로 왼발
겹걸음, 오른발 겹걸음
뒤를 본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종종 걸음 나아가



〈53〉
두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
앞에 뿌려



〈54〉
아래로 내린다.



〈55〉
19~21장단
〈몸통 트는 사위〉·〈들 사위〉
〈양손 위에서 퍼 뿌리는 사위〉
천천히 왼쪽으로 돌아서려는
자세로



〈56〉
두팔을 펴기 시작하여
20장단에 계속 돌아 펴
올리고



〈57〉



〈58〉

21장단에 앞을 향하여
1박에 양손을 위로 뿌린다



〈59〉 22장단—

〈도금사위〉

〈한발 든 사위〉

〈양손 위에서 한쪽으로
뿌리는 사위〉

몸을 낮추면서 양손을 옆으로
내려 4박에 왼발을 들면서
양손을 왼쪽으로 뿌린 다음,
오른쪽으로 엇딘으며 두팔은
몸 왼쪽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나가



〈60〉
왼발을 오른쪽으로 엮고
오른쪽 비껴 앞의 잔걸음
나가면서



〈61〉
오른쪽 위로 뿌려 준다.



〈62〉 23장단—
〈한삼 걸치는 사위〉
〈어르는 사위〉
〈한삼 짚는 사위〉

왼손 위에 오른손을 걸치고,
왼쪽 짓고 오른쪽 짓고



〈63〉
오른발을 짚고 왼쪽으로
돌기 시작한다.



〈64〉 24장단—
〈뒷꿈치 찍으며 도는 사위〉

제자리에서 왼쪽으로 도는데
오른발로 두번 찍고 돌고



〈65〉
빠르게 두번 찍고 돈다.



〈66〉

끝박에 깊게 한번 찌고
돈다.



〈67〉 25장단—

〈양손 좌우 뿌림 사위〉

〈끼고 감는 사위〉

〈양손 위로 펴 뿌림사위〉

〈여미는 사위〉

중앙을 향해 오른발부터
잔걸음으로 걸어 나가며
두손을 오른쪽 위로 뿌리고



〈68〉
〈어깨걸치는 사위〉
다시 왼쪽으로 뿌리고



〈69〉
멈춰서 왼손이 오른손을
감았다가 풀어



〈70〉



〈71〉



〈72〉

두손을 위로 뿌려 준다.



〈73〉 26장단-

〈한삼 양어깨에 걸치는 사위〉

〈어르는 사위〉

두손을 가슴에 모아 양어깨에
반대로 걸친다(오른손은
왼쪽 어깨에 얹고, 왼손은
오른쪽 어깨에 얹는다).
2번 어르고, 왼발 뒷꿈치를
내딛고 제자리에서 짓는다.



〈74〉 27장단—
〈한발 짚고 도는 사위〉

제자리에서 왼발을 짚고
오른쪽으로 도는데



〈75〉
왼발을 짚고 돌기를
4번하여 한바퀴를 돈다.



〈76〉 28장단—
〈겹걸음〉

왼쪽으로 돌아나갈
자세에서 머물고 왼발부터
겹걸음으로 세걸음
나가면서



〈77〉
반원을 그리며 돈다.



〈78〉 29장단—
〈뒷꿈치로 찍기〉
〈양팔 펴드는 사위〉
〈빙글 도는 사위〉

오른발을 놓으며 두팔을
펴면서 제자리에서
반바퀴 돌아



〈79〉
마지막 박자에 뒤를 보고
왼발을 옆으로 떼어 놓는다.



〈80〉 30장단—
 〈빙글 도는 사위〉
 〈끼고 감는 사위〉
 〈학사위〉
 〈앞뒤 여미는 사위〉
 〈잔걸음〉

도는 것 연결해서 1박에
 오른발을 떼어 반바퀴 돌아
 정면을 향해 딛고 오른손을
 왼쪽에 끼고 왼손을 내려감아



〈81〉
 두손이 뒤로 치마를
 꼬리쳐 주고(학체)
 돋음새를 하여 오른발 들어



〈82〉
앞으로 잔걸음으로
두 걸음 나가



〈83〉
왼발을 내딛고 오른손을
앞에, 왼손을 뒤에 여민다.



〈84〉 31장단—
 〈앉는 사위〉
 〈끼고 앉는 사위〉
 〈엎는 사위〉
 〈빙글 도는 사위〉

오른발을 내딛고 몸을 낮춰
 오른손은 어깨 위로 얹고,
 왼손은 오른쪽 가슴 아래로
 여민다.



〈85〉
 양손을 오른쪽 위 방향으로
 뿌려 주고 일어나



〈86〉
왼발을 왼쪽으로 돌아 딛고
왼손을 가슴 앞에서 얹고



〈87〉
오른발은 다시 왼쪽으로
딛으며 한바퀴 돌아



〈88〉



〈89〉

왼쪽 방향으로 끼고 감는
사위를 한다.



〈90〉 32장단-
〈엮는 사위〉

반 앉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오른쪽 뒤에서
엮어 뿌리고



〈91〉
왼손을 왼쪽으로 틀어
엮어 뿌려주고



〈92〉
오른손을 머리 위로 제쳐
뿌려 내린 다음



〈93〉
왼쪽 어깨에 걸친다.



〈94〉
오른손을 천천히 내린다.



〈95〉 33장단—
〈들 사위〉
〈어르는 사위〉

앉은 상태에서 오른손만
천천히 들고 얼러 준다.



〈96〉 34장단—
 〈어르는 사위〉
 〈울릴 사위〉
 〈무릎 드는 사위〉
 〈손목 돌리기〉

계속 일어나며 오른손을
 위로 올리며



〈97〉
 오른발 들고 오른손을
 머리 위에 뿌린다.



〈98〉 35장단—
〈한삼 어깨 걸치기〉
〈빙글 도는 사위〉
〈돌 사위〉

오른발을 옆으로 딛으면서
오른쪽 어깨도 내려 엮고



〈99〉
몸을 앞쪽으로 돌리며
왼손을 들고 뒤로 돌아,
양손을 모아 한삼을 벗을
준비를 한다.



〈100〉 36장단—
〈뒷꿈치 짝어 돌기〉

제자리에서 왼쪽으로
한바퀴 돌아 서면서
한삼을 뺀다.



〈101〉 37장단—
천천히 반바퀴 더 돌면서
한삼을 계속 빼고



〈102〉

원삼을 벗으며 계속 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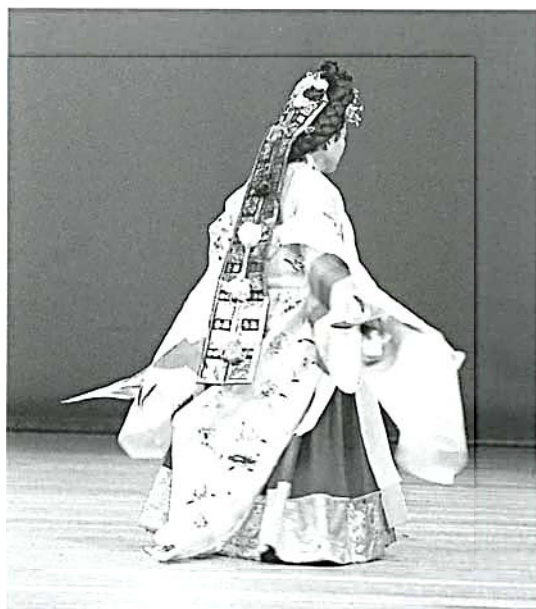


〈103〉 38장단—

원삼을 계속 벗어 손에
잡는다.



〈104〉



〈105〉



〈106〉 39장단—
〈한삼 팔에 걸치기〉
〈어르는 사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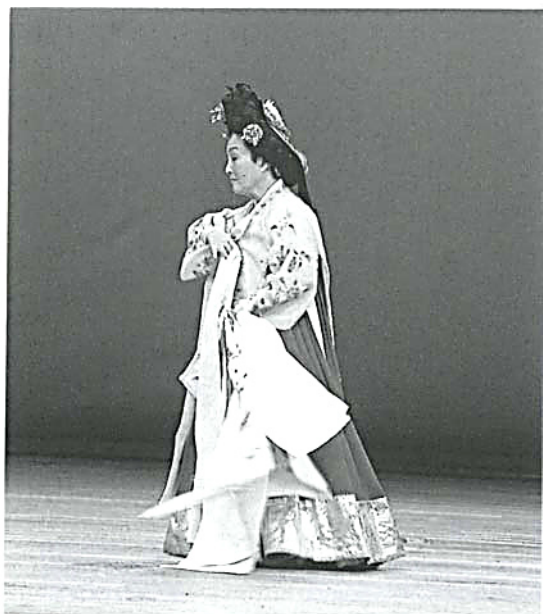
앞을 보고 왼삼을
(오른손에) 잡고



〈107〉
오른쪽 뒤로 돌아갈 듯
하다가



〈108〉
왼팔 위에 왼삼을 걸친다.



〈109〉 40장단—
〈어르는 사위〉

제자리에서 오른쪽·왼쪽,
오른쪽·왼쪽으로 어른다.



〈110〉 41장단-

〈느린 걸음〉

〈자진 걸음〉

궁녀쪽으로 오른발 걷고 ·
원발 걷고 오른발 · 원발
따라가고, 오른발 · 원발
따라가 옷을 궁녀에게 준다.



〈111〉 42장단-

〈들 사위〉

〈몸통 트는 사위〉

두손을 펴면서 앞쪽으로
돌아 앞을 바라본다.



〈112〉 43장단—

〈들 사위〉

〈내릴 사위〉

왼손을 내리며 오른손을
들고 궁녀쪽을 바라본다.



〈113〉 44장단—

〈들 사위〉

반대로 왼손을 펴 들고
오른발을 왼쪽으로 딛으며



〈114〉
왼쪽으로 돌아간다.



〈115〉 45장단-
〈빙글 도는 사위〉
〈끼고 감는 사위〉

제자리에서 계속 빙글 돌고
오른발 딛으며 앞을 보고,
오른손은 왼쪽에 끼고
왼손 내려 감는다.



〈116〉 46장단—
〈양손 들 사위〉

감싸인 손을 천천히 풀며
(왼손은 치마를 잡고)
오른손을 앞으로 든다.

• 잣은 터벌림(섭채)



〈117〉 47장단—
〈울릴 사위〉
〈내릴 사위〉

계속 오른손을 옆으로
올린 다음



〈118〉
돌려내려 양손으로 치마를
잡는다.



〈119〉 48장단—
〈무릎 들어 딛고 따라 딛기〉

오른발을 들어 정면 비껴
앞으로 한 걸음 나가고



〈120〉
원발을 따라 붙인다.



〈121〉 49장단—
〈겹걸음〉
다시 오른발로 겹걸음하고



〈122〉
왼발로 다시 한 걸음
걸는다.



〈123〉50장단—
〈겹걸음〉
앞을 향해 왼발부터
겹걸음으로 세걸음 나간다.



〈124〉 오리발 겹걸음



〈125〉 왼발 겹걸음



〈126〉 51장단—

오른쪽 앞으로 나오면서
오른발부터 겹걸음으로
세번 나간다.



〈127〉 52장단—
〈겹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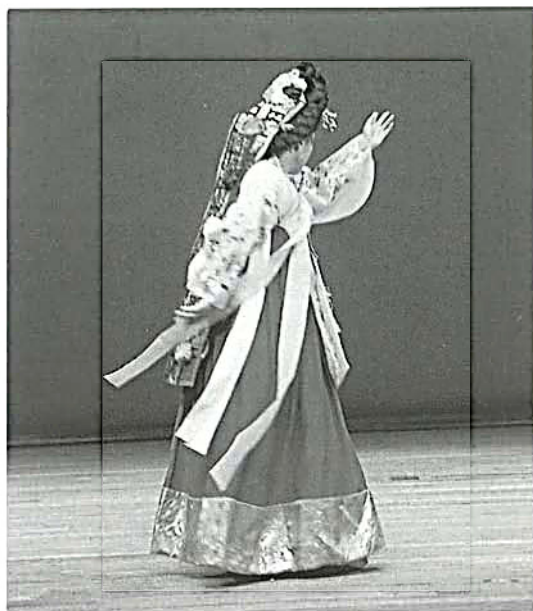
왼발부터 왼쪽으로 겹걸음
세번 나가



〈128〉
〈엷는 걸음〉



〈129〉



〈130〉

오른발 내딛으며 손을
치마에서 떼고 왼손을
몸 앞에서 엮는다.



〈131〉 53장단—

〈찍고 딛는 걸음〉

〈제쳤다 엮는 걸음〉

〈빙글 사위〉

〈공그리는 사위〉

오른발 앞꿈치로 찍고
오른손을 제치고



〈132〉
오른발 뒤꿈치로 딛으며
오른손을 얹는다.



〈133〉
왼발을 앞으로 앞꿈치로
찍었다 뒤꿈치로 딛고
왼손을 제쳤다 얹고



〈134〉

오른발을 엇딛어 들면서
오른손 머리 위로 앞에
뒤로 감아 돌리면서
왼쪽으로 반바퀴 돈다.



〈135〉 54장단—

〈빙글 사위〉

〈감고 푸는 사위〉

〈한발 들어 딛으며 도는 사위〉

〈끼고 감는 사위〉

계속 왼쪽 방향으로 돌면서,
왼쪽 머리 위에서 앞으로
감아 돌리면서 왼발을 많이
들었다 돌아 딛은 다음



〈136〉

계속 오른발 딛고 오른손
감아 돌린다.



〈137〉

위 동작을 좀 천천히
왼손으로 돌리며 왼발 딛고



〈138〉

역시 오른손을 머리 위에서
감아 돌리며 돈다.



〈139〉

오른손 끼고 왼손 감아
내린다.



〈140〉 55장단—
〈드는 사위〉

천천히 제자리에서 손을
풀면서 든다.



〈141〉 56장단—
〈올릴 사위〉
〈손목 놀림 사위〉
〈내리는 사위〉

계속 오른손을 올리다가



〈142〉
손목을 한번 돌려 내린다.



〈143〉 57장단—
〈뒤겹걸음〉
제자리에서 치마를 잡고



〈144〉
오른발을 뒤쪽으로
갈지(之)자 겹걸음으로
물러난다.



〈145〉
다시 왼발을 뒤로
겹걸음하고



〈146〉
오른발을 앞게 들어 뒤에
딛는다.



〈147〉 58장단—
〈겹걸음〉

반원을 그리며 앞으로
돌아 나오면서 겹걸음으로
왼발부터 네걸음 나간다.



〈148〉



〈149〉 59장단—
〈겹걸음〉
〈무릎 들어올리기〉

계속 겹걸음으로 세걸음
걸어 돌아



〈150〉



〈151〉
오른발 들어서 반바퀴
돌아 밟는다.



〈152〉 60장단—
〈무릎 들어 걷기〉
〈뒤걸음〉

왼발부터 들어 감아 딛고



〈153〉
다시 오른발 들어 감아
딛으며 돈 다음



〈154〉
정면을 보고 제자리에서
왼발 뒤로 겹걸음하고
오른발을 든다.



〈155〉 61장단—
〈뒤겹걸음〉
오른발부터 뒤로 겹걸음을
네번 나간 다음



〈156〉



〈157〉
오른발을 앞으로 살짝
내딛고 왼발을 따라 붙인다.



〈158〉 62장단—
〈겹걸음〉

오른발부터 앞으로
겹걸음으로 나온다.



〈159〉



〈160〉 63장단—
〈뒤걸음〉

다시 뒤로 왼발부터
걸음으로 나간다.



〈161〉



〈162〉 64장단—
〈어르는 사위〉
〈옆으로 옮겨 딛는 사위〉
〈빙글 도는 사위〉

오른발을 옆으로 딛고



〈163〉
제자리에서 어르면서
왼쪽 옆으로 돌아선다.



〈164〉

이때 팔을 펴면서 뒤를
본다. (반회전)

3. 올림채

1) 올림채 I



〈165〉

〈빙글 도는 사위〉
〈양손 번갈아 안쪽으로
휘젓는 사위〉
〈양팔 폈다 모으는 사위〉
〈뒷걸음〉

제자리에서 왼쪽으로 180° 돌아
뒤를 보면서 오른손을 내려
허리에 감는다.



〈166〉

오른손·왼손을 번갈아
앞가슴 쪽으로 감아
내리기를 세번 한 다음



〈167〉



〈168〉

양손을 옆으로 뻗다가



〈169〉

앞에서 양손 엮걸어 모은다.
이때 왼발부터 뒤로
다섯걸음 물러난다.



〈170〉
〈감고 푸는 사위〉

제자리에서 양손을 옆으로
펴 들면서 온몸을 매박자마다
짓은 다음



〈171〉
끝에 몸을 오른쪽으로
약간 돌린다.



〈172〉
 〈제쳤다 얹는 사위〉
 〈따라 붙이는 사위〉·〈겹걸음〉
 오른발 두번 내딛으며 왼손을
 젖혔다 얹고



〈173〉
 다시 오른발 두번 내딛으며
 오른손을 젖혔다 얹는다.
 왼발은 겹걸음하며 왼손
 젖혔다가 오른발 겹걸음하면서
 왼손을 얹는다.

2) 올림채 II



〈174〉
〈제쳤다 얹는 사위〉

제자리에서 몸통을
왼쪽으로 틀고 오금을
죽이면서, 오른손을 짚었다
얹고 다시 왼손 짚었다
얹고, 다시 오른손을
짚었다 얹는다.



〈175〉
〈위에서 감고 풀며 돌리는 사위〉
〈무릎 드는 사위〉
〈빙글 도는 사위〉
〈내릴 사위〉
〈치마 잡는 사위〉
〈뒤꿈치 짚는 사위〉



〈176〉

양손 머리 위에서 왼손 감고
오른손 풀어 돌리면서,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왼발부터 무릎 들었다 닫고,
오른발 닫는 돌 사위를
네바퀴 돈다.



〈177〉



〈178〉

양손을 내려 치마를 잡고
오른발을 옆으로 뒤꿈치로
찍는다.



〈179〉

〈뒤꿈치 찍기〉
〈겹걸음〉·〈뒤겹걸음〉

다시 한번 오른발 찍고



〈180〉
오른발부터 뒤로 겹걸음하고



〈181〉
왼발 뒤로 겹걸음,
오른발 뒤로 겹걸음



〈182〉
왼발부터 앞으로 겹걸음
나가고



〈183〉
오른발 겹걸음, 왼발 겹걸음



〈184〉
왼발부터 겹걸음한다.



〈185〉
오른발 뒤로 겹걸음
왼발 뒤로 겹걸음
오른발 뒤로 겹걸음
왼발 뒤로 겹걸음



〈186〉
오른발 크게 들어
옆으로 딛는다.



〈187〉
〈겹걸음〉
왼발 들었다 딛으면서
제자리에서 겹걸음.
오른발 제자리 겹걸음.



〈188〉

왼발 제자리걸음 좀 더
빠르게 오른발 왼발 겹걸음
오른발은 옆으로 내딛기



〈189〉

오른발 두걸음 비껴
앞으로나간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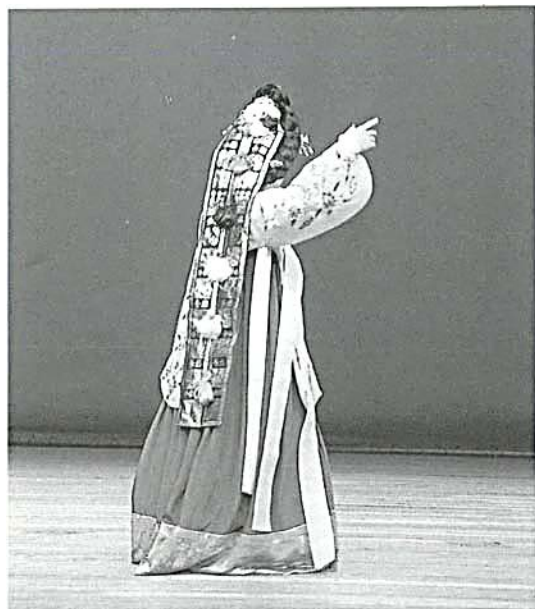
〈190〉

오른발을 왼쪽으로
감아 돌아 딛으며 치마를
잡았던 왼손을 들어 얹어
양팔을 편다.



〈191〉

4. 도살풀이 (60 장단)



〈192〉 1장단—
〈빙글 도는 사위〉
〈들 사위〉

뒤를 본 상태에서 앞으로
돌아서며 양팔은 옆으로
벌린다.



〈193〉 2장단—
〈양손 모아 여미는 사위〉
〈뒷걸음〉·〈들 사위〉·〈잔걸음〉

두손을 앞으로 모으면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가



〈194〉

다시 양팔을 어깨 높이로
퍼면서 앞으로 잔걸음으로
나간다.



〈195〉 3장단—
〈모아 여미는 사위〉

한장단 동안에 두손을
앞으로 모아 내린다.



〈196〉 4장단—
〈피는 사위〉

시선은 왼쪽을 보면서
한장단 동안 천천히
양손을 펴 준다.



〈197〉 5~6장단—
〈들 사위〉
〈어르는 사위〉

두장단 동안 계속하여
양손을 펴들면서 어른다.



〈198〉 7~9장단—
〈올리는 사위〉
〈어르는 사위〉·〈엎는 사위〉

2박씩 두 번 (왼쪽부터)
어르고 1박씩 네 번,
그 다음은 잘게 어른다.



〈199〉
마지막 4박에는 두손을
머리 위로 들고 오른발 든다.



〈200〉 10장단—
〈끼고 드는 사위〉

1박에 든 오른발을 비껴
뒤로 내딛고, 양손을 머리
위에서 감아 내려 오른손은
머리 높이, 왼손은 치마를
잡고 어른다.



〈201〉 11장단—
〈따라 붙이는 걸음〉

오른발 사선 뒤로 2박
한걸음 나가고 한박 한걸음씩
빗겨 뒤로 나간다.



〈202〉 12장단—
〈들 사위〉

왼손을 들면서 오른손을
천천히 내리고 정면을 본다.



〈203〉 13~14장단—
〈끼고 감는 사위〉

계속 들면서 왼손은
올라가고 오른손은 허리로
내려온다.



〈204〉
4박에 오른손을
왼쪽에 끼고 왼손으로
감아 내린다.



〈205〉 15장단—
〈끼고 드는 사위〉
〈뒤꿈치 짚기〉

오른손은 빠르게 풀어서
엎고, 왼손은 치마를 잡으며
오른발을 짚어 준다.



〈206〉 16~17장단—
〈2박 한걸음〉
〈1박 한걸음〉
〈따라 붙이는 걸음〉

오른손 들고 오른발부터
2박 한걸음으로 두걸음
나간다. 계속 1박에
한걸음으로 두걸음 나가고,
오른발에 잔발이 따라 붙는
걸음을 2번 나간다.



〈207〉 18장단—
〈엇불임 사위〉
〈여미는 사위〉·〈들 사위〉

제자리에서 오른발을 왼쪽에
크게 딛으며 오른손을
안쪽에 여뒀다가 다시 펴
들면서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한다.



〈208〉



〈209〉 19~20장단—
〈방글 도는 사위〉
〈울림 사위〉

왼손을 머리 위로 들고
두장단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한바퀴 돈다.



〈210〉



〈211〉 21장단—
〈제치고 얹는 사위〉
〈감아 드는 사위〉
〈도는 사위〉

오른발 딛고 다시 왼발 얹고



〈212〉

몸통을 되돌려 오른손을
머리 위로 감아 돈다.



〈213〉 22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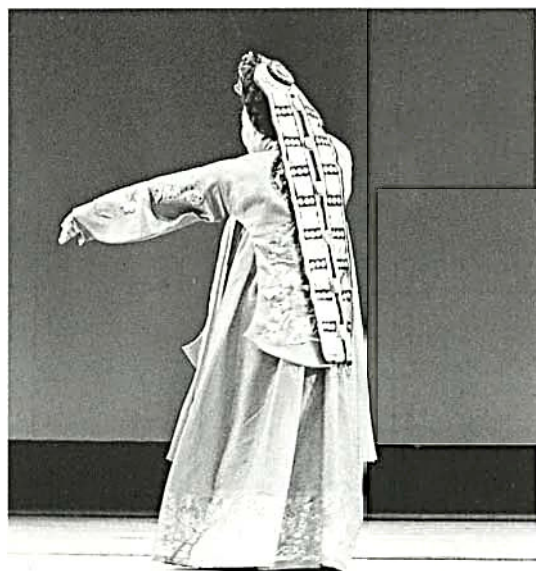
〈들 사위〉

〈빙글 도는 사위〉

양팔을 펴고 왼쪽으로
천천히 돈다.



〈214〉



〈215〉 23장단—
〈제치고 엮는 사위〉
〈찍고 딛는 걸음〉
〈엮붙여 돌기〉

오른손 제치고 엮고 다시
왼손 제치고 엮으며,
오른손을 머리 위로 올린다.
이때 발은 오른발 찍고 딛고,
왼발 찍고 딛고 오른발로
감아 돈다.



〈216〉



〈217〉 24장단—

〈들 사위〉

〈돌 사위〉

양손을 펴면서 앞쪽으로
돌아 왼손 앞에 둔다.



〈218〉 25장단—
〈양손 번갈아 안쪽으로
휘젓는 사위〉

1·2박은 왼발 뒤로 가고
오른손 앞에 여미고

3·4박은 오른발 뒤로 가고
왼손 앞으로 여민다.



〈219〉 26장단—
〈휘젓는 사위〉

25장단의 동작을 빠르게
1박씩 하고, 3·4박에
제자리에서 손만 오른손·
왼손·오른손을 앞쪽에서
안쪽으로 감아 젓는다.



〈220〉 27장단—
〈한손 여밀 사위〉
〈헤엄 사위〉
〈따라 붙이는 걸음〉

1박은 오른발 나가면서
왼손 앞으로 여미고



〈221〉
2박은 왼발 나가고,
오른손 앞에 여미고



〈222〉

3·4박은 오른발에 왼발
따라 붙이기를 두번하면서
양팔을 옆으로 내려 너울
거린다.



〈223〉 28장단—

〈해엄 사위〉

〈잔걸음〉

〈몸을 숙이는 사위〉

양손을 옆으로 내려 계속
너울거리면서 앞으로
잔걸음으로 나와 몸을
숙인다.



〈224〉



〈225〉 29장단—
〈무릎 드는 사위〉

1·2박은 계속 상체를
펴면서 오른손·오른발
들었다. 3·4박에 오른발
닫고 어른다.



〈226〉 30장단—
〈들 사위〉

한 장단 동안 왼손 펴면서
천천히 돌아 앞을 본다.



〈227〉 31장단—
〈어르는 사위〉

계속 앞을 보며 어른다.



〈228〉 32장단—
〈손목 놀림 사위〉

손바닥 위로 열러 주고,
4박은 두손을 옆을
준비자세를 한다.



〈229〉 33장단—
〈양손 엮어 드는 자세〉
〈손목 떨어뜨리는 자세〉

1박에 두손을 엮고, 뒤로
한발 떼면서 양손은 위에서
엮어 어깨높이로
떨어뜨린다.



〈230〉 34장단—
〈어르는 사위〉

1박씩 왼쪽·오른쪽으로
어른다.



〈231〉 35장단—
〈뒷걸음〉
〈앞뒤 여미는 사위〉

왼발 뒤로 한걸음 나가면서,
오른손·왼손을 앞뒤로
여민다.



〈232〉 36장단—
〈앉는 사위〉
〈머리 위로 얹고 겨드랑이
끼는 사위〉

오른쪽으로 기울여 앉으며,
오른손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은 앞에 여민다.



〈233〉 37장단—
앉은 상태에서 앞을 향한다.



〈234〉 38~39장단-
〈어르는 사위〉

천천히 일어나면서 2박씩
두번 어르고, 1박씩 네번
어른다.



〈235〉 40~41장단-
〈어르는 사위〉

일어나서 2박씩 두번
어른다. 완전히 일어나서
자지게 어른다.



〈236〉 42장단—
〈양손 위로 폈다
내리는 사위〉
〈앞뒤 여미는 사위〉

1·2박은 오른발 뒤로 가면서,
양손을 머리 위에서 편다.



〈237〉
왼손은 가슴 앞에 여미고,
오른손은 뒤로 여민다.



〈238〉 43장단—
〈여미는 사위〉

왼발 뒤로 물러나면서
양손은 반대로 오른손은
앞·왼손은 뒤로 여민다.



〈239〉 44장단—
제자리에서 온 방향만
왼쪽으로 돌린다.



〈240〉 45장단—
〈치마 잡는 사위〉

양손 치마 잡고
오른발 4박 한걸음
나온다.



〈241〉 46장단—
〈4박 한걸음〉

왼발 4박 한걸음
나온다.



〈242〉 47장단-

4박 동안 머물러 서
있으면서 시선을 위로
띄운다.



〈243〉 48장단-

〈들 사위〉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으며
왼손을 천천히 든다.



〈244〉 49장단—
〈따라 딛는 걸음〉

왼손을 든 상태에서 2박에
왼발 내딛고 · 오른발 딛고,
왼발 따라 딛고 다시
오른발을 내딛는다.



〈245〉 50장단—
〈내릴 사위〉

왼손 내리면서 돌아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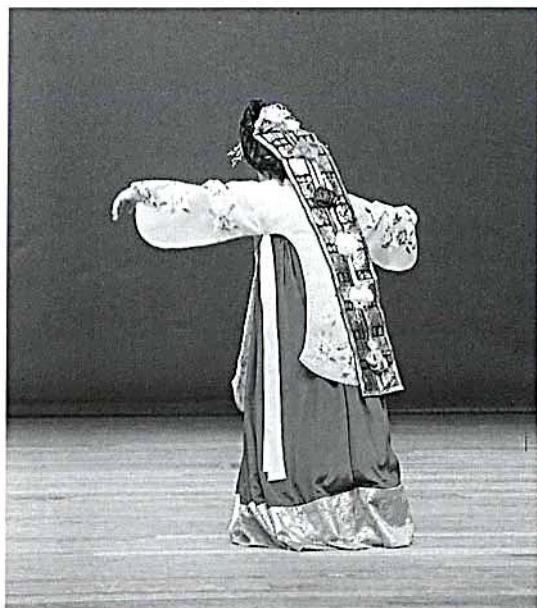
〈246〉
51장단-〈들 사위〉

한 장단 동안 오른손 뒤로
쳐든다.



〈247〉 52장단-
〈엎었다 제치는 사위〉
〈한박 한걸음〉
〈잔걸음〉
〈올리고 내리는 사위〉

오른손을 들어 엎었다.
제쳤다 하면서 1박
한걸음으로 오른발·왼발
나가고, 자진걸음으로 2박에
여섯걸음 나간 다음 오른손은
머리 위로 들고 왼손은 앞에
여민다.



〈248〉 53장단—
〈들 사위〉

뒤를 보고 천천히 돌아설 듯
하며 양손은 조금 편다.



〈249〉 54~55장단—
〈여밀 사위〉
〈내렸다 올리는 사위〉

두 장단 동안 왼손은 가슴에
여미고, 몸을 서서히 돌리며
오른손은 내렸다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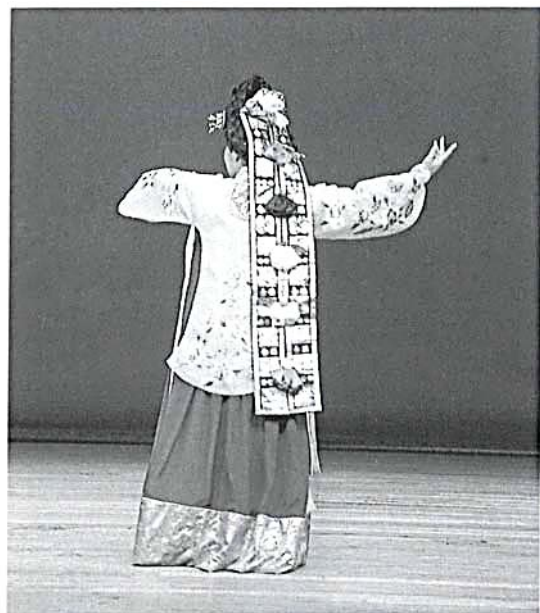


〈250〉



〈251〉 56~58장단—
〈빙글 도는 사위〉
〈들 사위〉

세 장단 동안 두팔을 펴들고
왼쪽으로 천천히 돈다.



〈252〉



〈253〉 59장단—
〈빙글 도는 사위〉

왼발은 안쪽에 딛고
오른발을 크게 왼쪽에
딛으며 크게 돌고,
다시 한바퀴 더 돈다.



〈254〉



〈255〉 60장단-
〈찍고 돌 사위〉

오른발을 찍고 무릎을 굽혀
왼쪽으로 돌아 잣은
도살풀이 연풍대로
들어간다.

5. 잣은 도살풀이 (20장단)



〈256〉 1~2장단—
〈엮고 제치는 음과 양의
연풍대 사위〉

오른손을 엮고 왼손을
제쳤다 하면서 첫박에
오른손부터 시작해서
1박에 한손씩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반원을 그리며
6박 동안 (2장단 반,
이를테면 1박 6박)을
중앙 뒤로 연풍대로
간다. 3회 연풍대를 하고,



〈257〉
7·8박은 양손을 가슴으로
모아 정면을 보면서
양손목 돌려 옆으로
퍼 든다.



〈258〉 3장단—
〈어르는 사위〉
〈손목 떨어뜨리는 자세〉

양팔 벌려 제자리에서
1박에 양손목 떨어뜨리고,
3·4박은 제자리에서
어른다.



〈259〉



〈260〉



〈261〉



〈262〉 4~5장단—
〈어르는 사위〉

좌우 어르는 사위하면서
양팔 벌려 앞으로 8호간
걸어 나온다.



〈263〉 6~7장단—
〈따라 붙이는 걸음〉
〈∞형 그리기〉

6장단은 왼쪽으로 오른손을
앞으로 접으면서 오른발
붙이는 걸음으로 1회 회전
(4호간)



〈264〉



〈265〉

7장단은 오른쪽으로
오른손 옆으로 벌리면서
오른발 따라 붙이는
걸음으로 1회 회전(4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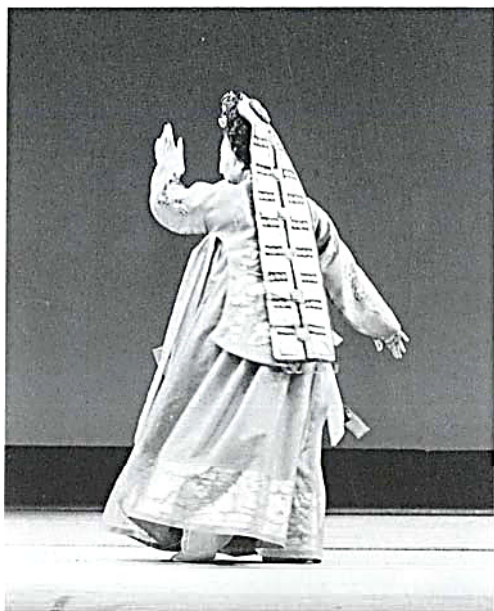


〈266〉



〈267〉 8장단—
〈음과 양의 회전 사위〉

8장단 (왼쪽으로 1회 회전)
오른손 뒤에서 제치고
3·4박에 돌면서 (½회전),
1박에 왼발 옆으로 딛고,
2박에 돌면서 (½회전),
왼손 어깨 높이에서 앞는다.



〈268〉



〈269〉 9장단—
〈왼쪽으로 2회 회전〉

1박에 오른손 위에서
제치고, 2박에 왼손을
엮는다. 3박에 양손 머리
위로 원을 그려 4박에
오른손 앞으로 허리를 감는다.



〈270〉



〈271〉



〈272〉 10~11장단—
〈음과 양의 회전 사위〉
〈잔걸음〉

10장단은 무대 상수에서
하수로 잔걸음으로
오른손 어깨 높이까지
올리면서 1·2박까지
간다. 3박에 오른발 딛고
오른손 앞는다.



〈273〉
4박에 왼발 감아 돌아
(½회전) 왼손 앞에 온다.
11장단은 1박에 양무릎
굽히고, 2박에 오른발
들면서 왼손은 가슴앞
어깨 높이까지 올려
제치면서 뒷 잔걸음으로
원을 크게 그리기 시작한다.



〈274〉



〈275〉



〈276〉 12~14장단—
〈음과 양의 회전 사위〉
〈잔걸음〉

1박에 왼쪽으로 돌아 왼발
딛고 왼손 어깨 높이에서
엮고, 2박에 돌면서 오른손
앞으로, 3·4박에 오른손
가슴 앞 어깨 높이까지 올려
제치면서 뒷 잔걸음으로
간다.

13장단—12장단의 반대 동작
14장단—12장단과 동일 사위



〈277〉



〈278〉 15~16장단—
〈앉는 사위〉

15장단은 반회전 하면서
오른발 옆으로 크게 딛고
오른손은 어깨 높이에서
엮고, 시선은 앞을 보면서
비스듬히 왼발은 무릎을
꿇고 앉는다.



〈279〉

16장단은 서서히 오른쪽으로
돌면서 일어나 무대 하수
뒤쪽으로 향해 4박에 왼발
하수 뒤 앞으로 딛고
양손을 어깨 높이로 든다.



〈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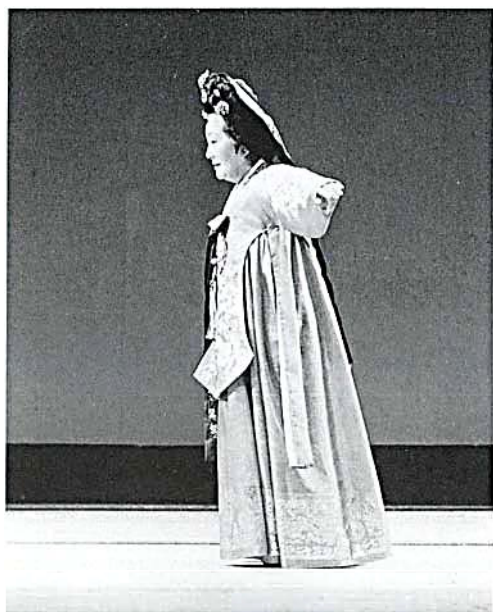
〈281〉



〈282〉



〈283〉



〈284〉



〈285〉 17~20장단—
〈몸통 트는 사위〉

17장단은 1박에 오른발
하수 뒤 앞으로 딛으면서
양손 머리위로 올린다.
2박부터 천천히 시선을
앞으로 하면서 왼쪽으로
몸을 틀면서 손을 내리기
시작한다.



〈286〉

18장단은 17장단의 연결
19장단은 18장단의 연결로
오른손을 앞으로 감으면서
천천히 무릎을 굽힌다.
20장단은 1박에 오른손을
앞에 허리감고, 왼손은
치마 잡고 왼발은 동시에
둔다. 3·4박에 하수 뒤를
향해 앞으로 잔걸음으로
간다.



〈287〉



〈288〉



〈289〉



〈290〉



〈291〉

6. 터벌림 (5장단)



〈292〉 1장단—
〈양손 위로 폈다 내리는 사위〉
〈몸통 트는 사위〉

양손 위로 뿌리고 차츰 몸을
왼쪽으로 틀면서 왼손을
앞으로 내리면서 오른손으로
감는다.



〈293〉



〈294〉



〈295〉



〈296〉



〈297〉 2장단—
〈치마 잡는 사위〉

왼손 치마 잡고 왼발부터
세 걸음 나가서 오른손
어깨 높이까지 올린다.



〈298〉 3~4장단—
〈잔걸음〉

오른발부터 앞으로 5박 동안
세 걸음으로 나가서
5박 동안 앞을 보고 차츰
돌아선다.

〈앞뒤 여미는 사위〉
오른 손을 앞으로 여미면서
오른발부터 두 걸음 나온다.



〈299〉 5장단—
〈양팔 모아 들 사위〉
〈모아 들 사위〉

양손을 위로 모아 머리 위로
들면서 천천히 상수를
향한다.



〈300〉

양손을 내리면서 오른발 ·
왼발을 닫으며 거자세로
퇴장한다.



〈301〉 끝

기 획

박상국(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장)

조사·정리

정병호(전 문화재위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이명자(태평무 조교)

양성옥(태평무 조교)

서승우(예능민속연구실 연구원)

사 진

서헌강(사진작가)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 ⑤

태평무(太平舞)

1997년 9월 초판인쇄

1997년 9월 초판발행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28810-86822-57-9718

발행처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집 예능민속연구실

제작처 신유문화사

• 본 내용의 무단 게재를 금합니다. <비매품>

